

2013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초대국가 독일관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2013

Guest Country Pavilion Germany

독일 현대 공예

German
Contemporary
Arts & Crafts

Felt is a handcraft that has been made over the last centuries in many countries and in a great variety. As a professional and teacher of this technique I develop possibilities of two and three dimensional feltobjects. As a textile designer I aim to work with the surfacedesign either on silk or on the felt itself.

Many years ago I began to combine the skills I had developed in both areas and the process of felting was just perfect. Layers of prefelted wool combined with digitaly designed and printed silk will completely merge together after the felting process. This gave me the possibility of bringing strong photographic and graphic design on to my feltwork.

The themes: my parents emigration to Uruguay after the second world war, settle down and identity.

펠트는 수공예이며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나는 이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가와 강사로서, 2차원과 3차원적으로 펠트라는 오브제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 나는 텍스타일 디자이너로서 실크나 펠트 위에 표면 디자인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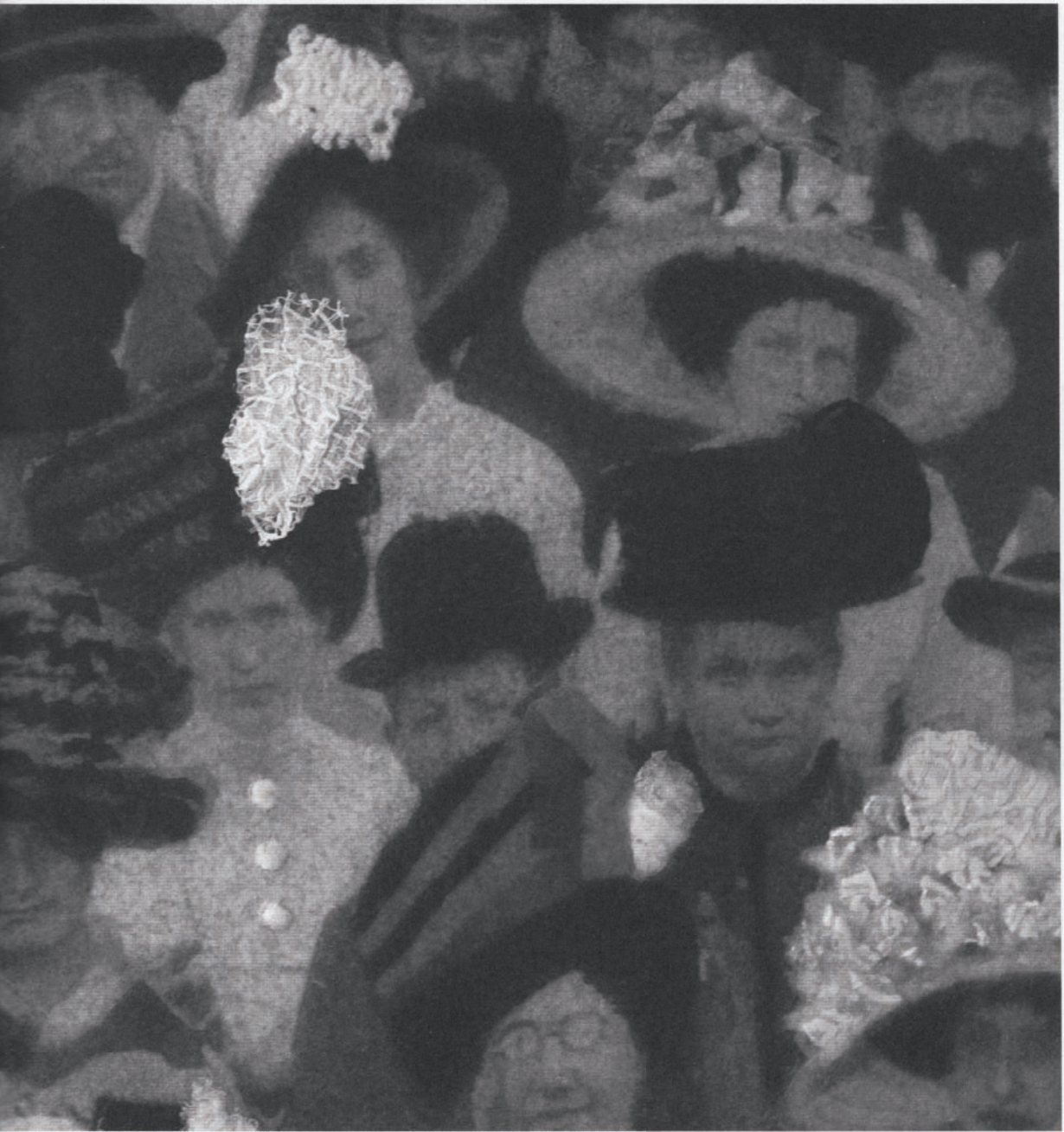
수년 전부터 나는 이 두 가지 분야에 직접 개발한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했으며, 펠트 가공법은 거의 완벽한 결과를 지어냈다. 펠트 처리된 순모겉(층)은 디지털로 디자인되어 인쇄된 실크와 조합하여 펠트 가공한 후에는 완전히 결합되었다. 이 과정은 나의 펠트 작업에 강한 사진적인 요소와 그래픽 디자인 요소를 가미해주었다.

주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우루과이로 이민 간 부모님의 정체성과 정착 과정.

1961 in Uruguay
 1981 move to Germany
 1985 formation to a handweaver
 1986-91 studies of textile design, FH Reutlingen, Germany

1961 우루과이 출생
 1981 독일 이주
 1985 방직공으로 시작
 1986-91 텍스타일 디자인 전공, FH 로이틀링겐, 독일





Mural "Humans", 2011
Wool, silk, felted, print technique
240 x 115 cm
벽화 "Humans", 2011
순모, 실크, 펠트, 인쇄 기술
240 x 115 cm

